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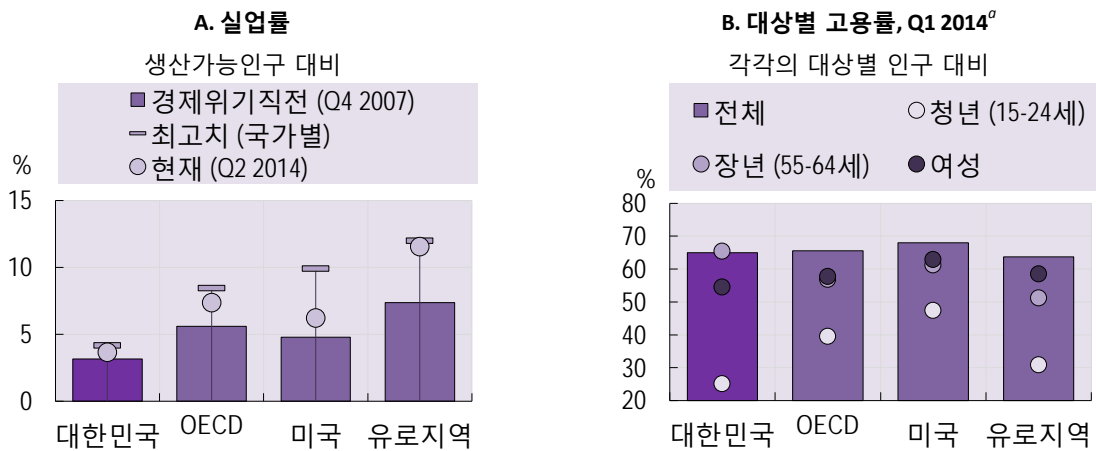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The 2014 edition of the OECD Employment Outlook reviews recent labour market trends and short-term prospects in OECD and key emerging economies. It zooms in on how the crisis has affected earnings, provides country comparisons of job quality, examine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n-regular employment, and estimates the impact of qualifications and skills on labour market outcomes.

For further information: www.oecd.org/employment/outlook

DOI: [10.1787/empl_outlook-2014-en](https://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성과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046-en>).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낮은 실업률과 고용률의 증가라는 면에서 OECD 국가 중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 2014년 2/4분기 3.7% (위 그림 참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인데,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2013년 6월 고용률 제고를 위한 포괄적 정책 패키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를 발표한다.

금년 들어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2014년 2/4분기 고용률(15-64세)은 65.0%로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 4/4분기의 64.0%보다 1.0%p 높다. 특히 동 로드맵의 주요

정책대상인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근로연령인구의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개선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각 2/4 사분기를 비교하면 남성 고용률이 74.8%에서 75.4%로 증가함에 반해 여성 고용률은 53.7%에서 54.6%로 증가하였다. 청년 고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23.9%에서 25.2%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률 증가(64.3%에서 65.0%)보다 거의 두 배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의 양호한 성과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이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는 OECD 국가들의 일자리의 질에 대해 폭넓게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세 가지 영역이 고려된다: 소득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그리고 근로환경의 질이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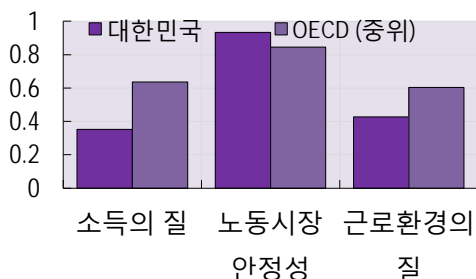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OECD 2014년 9월

Last updated: 17-Nov-2014

그것이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시 대한민국은 노동시장 안정성은 평균 이상, 소득의 질 및 근로환경의 질은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질 및 고용기회 (2010)

지수 (0-1)...



지수 (0-1)

출처: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

노동시장 안정성과 관련,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효과성을 보이는 실업급여 체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위험이 평균이상의 점수에 기여했다. 소득의 질과 관련,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평균소득은 10 번째로 낮고 소득불평등 정도는 4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의 질은 전형적인 OECD 국가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비교는 대한민국의 경우 특히 소득불평등의 축소와 실업급여 강화(지급수준 및 적용범위)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법상 실업급여의 적용범위는 거의 전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행 확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수준 인상 및 유효 적용범위의 확대가 효과적인 적극적 취업활동 촉진 수단과 병행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 는 일자리의 양과 질 간의 상충관계가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국가가 일자리의 양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일자리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첫 우선순위이다

주로 비정규직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분명히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을 악화시킨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시직 비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2012 년 기준 약 22%의 근로자가 임시직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9%p 높은 것이다. 임시직 비율은 특히 장년층에서 높는데, 55 세 이상 근로자의 40%가 임시직이다. 그러나, 핵심근로연령 계층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19%), OECD 국가 중 동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칠레, 폴란드,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뿐이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 의 실증분석결과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종료 코스트의 차이가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유인으로 작용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 는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의 고용종료 규제를 보다 동질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고용종료 코스트 편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에는 법원의 원직복직명령을 차별 및 기타 금지되는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과 임시근로계약 종료시 사전예고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를 확보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다른 임금결정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11.2%에 이르는 것으로 (작년에 비해 1.0%p 줄긴 했으나)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2014 고용전망보고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OECD website 에 접속하시거나, OECD 홍보과에 요구하실 경우 기자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희망하시는 기자분들은 OECD 고용분석정책과 Mark Keese (+33 1 45 24 87 94; mark.keese@oecd.org) 또는 김성호 (+33 1 45 24 16 85; e-mail: sungho.kim@oecd.org)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 2014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OECD 2014 년 7 월

Last updated: 17-Nov-2014